

# “저 7호 옵셋기 밀이 바로 내 무덤”

## 32년째 ‘인쇄’ 외길 걸어온 평화당인쇄(주) 조효준 실장

“올챙이 몇마리를 잡아와서 환하게 웃던 막내 아들이 어느새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조효준씨(54, 평화당인쇄(주) 옵셋과 실장)는 “병치레가 잦던 막내가 어엿한 대학생이 됐건만 인쇄일을 하느라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일과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지만 퇴근시간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 일이 유동적인데다 인쇄물이 한번 밀리면 “밤을 꼴딱 새우는 건 다반사”다. 이는 조실장이 32년째 매달리고 있는 인쇄일이 얼마나 고단한 직업인가를 말해준다.

### 인쇄기계 분해 재조립 ‘척척박사’

그가 인쇄기능공이 된 때는 196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려고 했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그림을 포기해야만 했다. 고교시절, 선생님들로부터 ‘그림에 재능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그 자신도 학교 행사가 있을 적마다 연극세트를 혼자 힘으로 만들 정도로 그림에 대한 애착이 컸다. 그렇지만 졸업 후 “당장 살기 힘든 세상에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고민 끝에 인쇄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인쇄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색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동아출판사에 입사해 2년간 인쇄일을 익힌 다음 조실장은 지금의 평화당 인쇄(주)로 옮겨온다.

“인쇄 일을 처음 배우는 순간 4색으로 화려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환상이 무척히 깨졌습니다. 견습시절에 내가 한 일은 서울역에서 기름 사오는 것이나 기계 닦는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쇄의 질이 기계관리와 맞먹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평화당 인쇄에서 현재 쓰고 있는 옵셋기는 맨로랜드와 하이델베르크. 조실장은 이 기계들을 모두 ‘오버홀’(분해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계박사’다. 언젠가 《인협신보》에 쓴 글을 보면, 그가 오버홀을 시도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후배들이 빠져나오고 씨린다가 들어왔다...기류투성이의 물골이었고 끼니때가 되었는데 퇴근 때가 되었는데 아랑곳 없다. 오직 한가지씩 한가지씩 조립되어가는 모습만이 나로 하여금 희열을 느끼게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실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인쇄기밖에 없다.

조효준 실장은 인쇄기계들을 모두

분해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계박사’로 정평나 있다.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조차 제대로

신경쓰지 못할 만큼 고단했던 인쇄일을

32년째 계속하고 있는 조실장은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한 기술 전수에 힘을

쏟고 있다. 아예 인쇄기 밀을

‘무덤’으로 정할 만큼 조실장의

‘인쇄’ 외길의 신념은 확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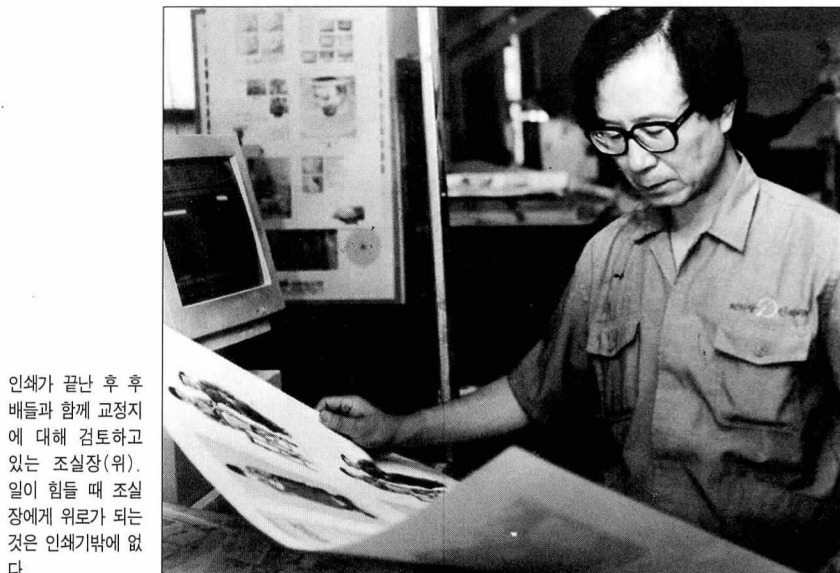
“인쇄기기 한대가 10억이나 합니다. 무엇보다 기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업계에 ‘기술자’가 전무하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여기 평화당인쇄사의 사장과 부사장은 외국인 기술자를 직접 불러서 저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운 기술을 밤 새워 다시 해보고, 그 노하우를 인쇄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쾌감이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그 힘으로 30년이나 버텼습니다.”

### 30여년 노하우 후배들 전수에 전념

경영진의 배려로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조실장이 현재 치중하는 일은 후배양성이다. 인쇄기기를 다루는 일부터 인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르치다보니 평화당 인쇄사가 ‘인쇄학교’로 불리게 됐으며 허허 웃는다.

“후배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게 첫째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배우려거든 교과서대로, 정식으로 배우라고 하죠. 아직도 일본 사람의 어깨너머로 배우던 기술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이 대반입니다. 전부 잘해놓고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하는 적당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실장의 지론을 따라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인쇄업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인지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몸값을 올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후배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인쇄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을 생각하면 그리 서운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움직임이 많을수록 노하우가 축적될 겨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계의 현실과 기술



인쇄가 끝난 후 후배들과 함께 교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조실장(위). 일이 힘들 때 조실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인쇄기밖에 없다.

자 양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재 가동중인 기계 모두 제 손 안간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인쇄의 품질관리와 기능전수에 애쓴 공로로 92년 ‘인쇄의 날’(10월 24일)에 표창하는 ‘인쇄협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전문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조실장은 사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구심이 대단한 데다 후배들을 잘 다스리는 점잖은 사람으로 정평나 있다. 회사에선 올백점짜리 근무성적을 갖고 있는 그이지만 가정에서는 ‘별볼일 없는 가정’으로 통한다.

“수십년간 기계를 만지다 보니 1더하기 1

은 꼭 2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집 안에서도 문은 꼭 닫아라, 환풍기는 이렇게 해야 바람이 잘 통한다, 일일이 지시하니까 집사람은 나보고 델리케이트하다, 피곤하다고 말하죠.”

그래도 ‘박봉을 쪼개서 자식을 잘 건사하는’ 부인 김금란씨(46)가 무척이나 고맙다고 한다. 지금 사는 곳은 개포동에 있는 17평짜리 주공아파트. 회경(25) 승경(23) 형기(21) 세 자녀 모두 조실장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13년 전 기계를 조립하면서 “저 7호기 밀이 내 무덤이 될 것”이란 각오가 새롭게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배은희 기자